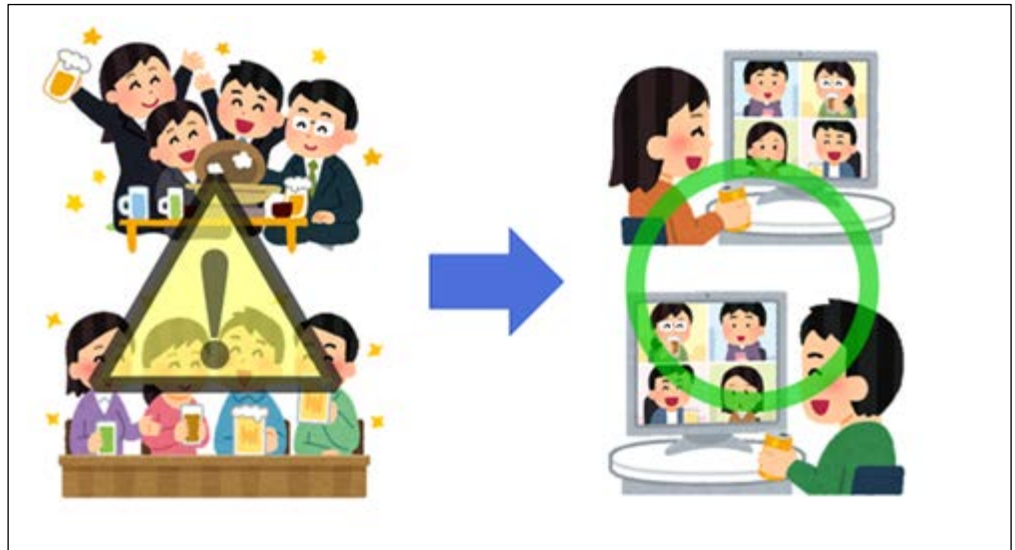


# I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“5 가지 상황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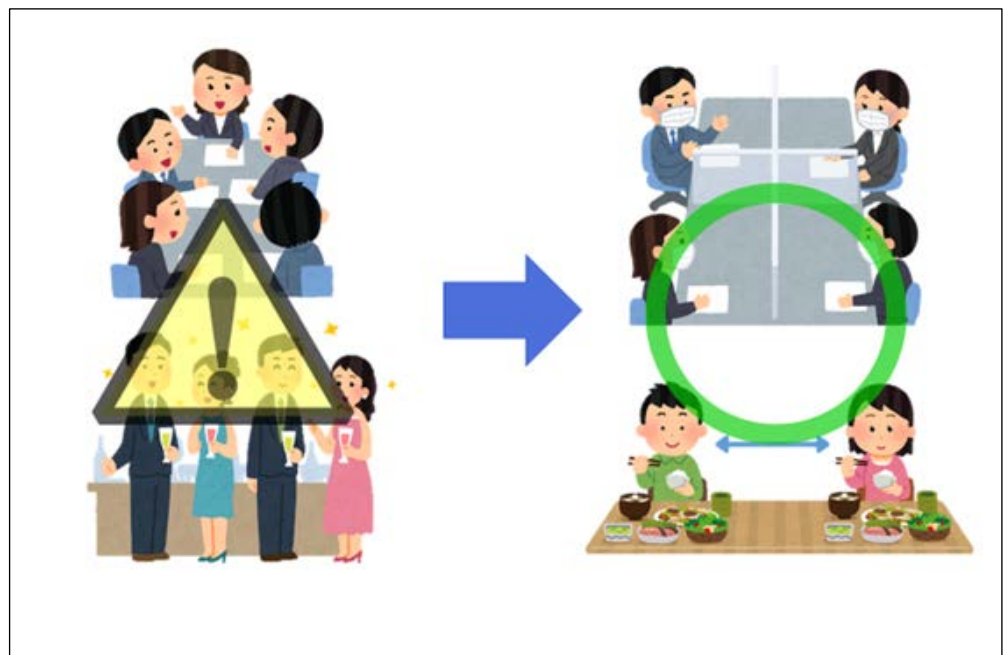
## 상황 ① 음주를 동반하는 모임 등

-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짐과 동시에 주의력이 저하됨.  
또한 청력이 떨어져 목소리가 커지기 쉬움.
- 특히 막혀있는 좁은 공간에 장시간, 많은 인원이 머무르면 감염 위험이 증가함.
- 또한 술잔을 돌리거나 젓가락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감염 위험을 높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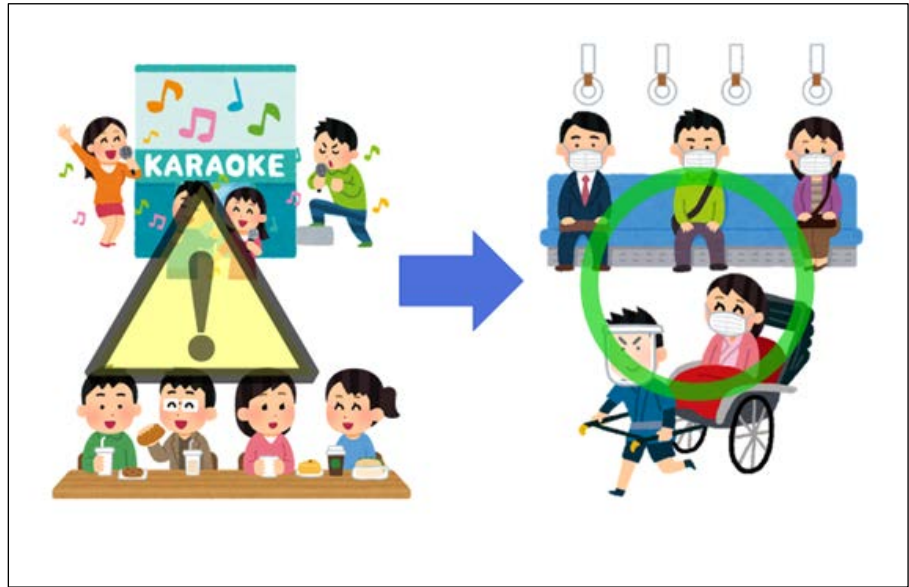
## 상황 ② 집단이나 장시간에 걸친 회식

- 장시간에 걸친 식사, 접대 회식, 심야까지 이어지는 음주는 단시간 내 식사보다 감염 위험이 높음.
- 예를 들면 5명 이상 참가하는 집단 회식에서는 목소리가 커져 비말이 전파되기 쉬우므로 감염 위험이 증가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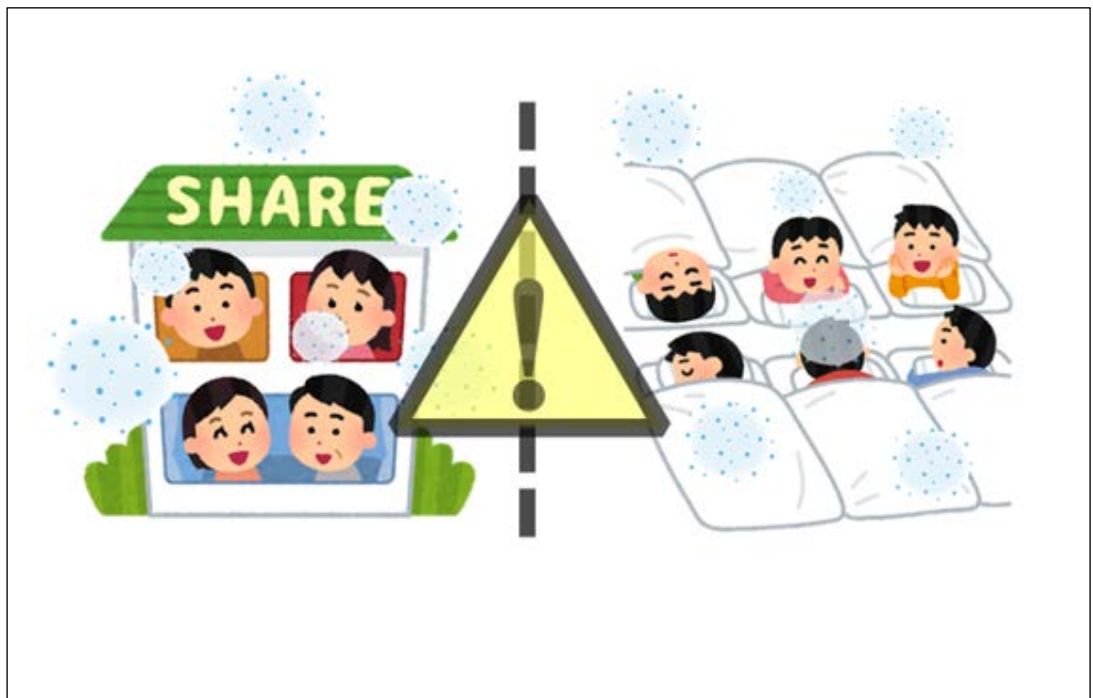
### 상황 ③ 마스크 없이 대화하기

- 마스크 없이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면 비말감염이나 에어로졸(공기 중 미세입자) 감염 위험이 증가함.
- 마스크 없이 감염된 사례로는 노래방 모임 등이 확인 되고 있음.
- 차나 버스로 이동하는 경우, 차 안에서도 주의가 필요.



### 상황④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생활 상황

-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생활은 밀폐된 공간을 장시간 공유하므로 감염 위험이 높음.
- 기숙사 방이나 화장실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됨.



## 상황⑤ 자리 이동

- 휴식 시간 등 직장에서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, 방심과 환경 변화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.
- 휴게실, 흡연 장소, 탈의실에서의 감염 의심 사례가 발견됨.



## II 감염 위험을 줄이면서 회식을 즐기는 방법

### <이용자 여러분께>

#### ① 음주를 하려면,

- 적은 인원으로 단시간에
- 가급적 평상시에 함께 있는 사람과
- 장시간의 음주, 2차 3차의 음주는 삼가하고 적당한 주량으로.

#### ② 젓가락과 컵은 함께 사용하지 않으며, 개별 사용으로

#### ③ 자리 배치는 대각선 방향으로

→ 정면이나 바로 옆은 가급적 피한다

→ 식사 시, 정면이나 바로 옆으로 앉았을 경우에는 감염 보고가 있으나, 대각선 방향으로 앉았을 경우에는 감염 보고가 없었던 사례가 있음.

#### ③ 대화를 나눌 때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

#### ④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방안 고안. 가이드 라인\* 을 준수한 영업점에서.

#### ⑤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참가하지 않는다.

## <영업하시는 분들께>

- ① • 영업점은 가이드 라인 \*의 준수를.  
(예를 들면, 종업원의 몸상태 관리나 마스크 착용, 좌석마다 아크릴 판의 효과적인 설치, 환기와 동시에 적절한 선풍기 이용 등의 방안 고안도.)
  - 이용자가 위와 같은 유의사항을 준수하고, 접촉확인어플(COCoA)을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힘쓸 것.
- ②음주의 상황도 포함해, 전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준수해 가길 바라는 점
  - 기본은 마스크 착용과 3 밀(밀집, 밀접, 밀폐)회피. 실내에서는 환기를 잘 하기.
  - 모임은 소수인원으로 단시간에 하기.
  -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대화는 가능한 조용히.
  - 공용시설의 청소 소독, 손씻기 알콜 소독을 철저히.

## Ⅲ 한냉한 기후에 신종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한 포인트

### 1. 기본적인 감염 방지 대책의 실시

- 마스크를 착용 (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다)
-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확보(1m를 기준으로)
- 「5 가지 상황」, 「감염 위험을 줄이면서 회식을 즐기는 방법」을 참고로
- 3 밀(밀집, 밀접, 밀폐)을 피하고,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

#### \* 『5 가지 상황』 이란

- 상황 1 : 음주를 동반한 친목회
- 상황 2 : 많은 인원과 장시간에 걸친 회식
- 상황 3 :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
- 상황 4 :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생활
- 상황 5 : 자리 이동

### 2. 추운 환경에서도 환기 실시

- 기계환기를 이용하여 상시 환기  
(강제적으로 환기를 실시하는 것으로 2003년 7월 이후에는 주택에도 설치.)
- 기계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, 실내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범위에서 상시 창문을 열고(창문을 조금 열고, 실내온도는 18도 이상을 기준으로!), 또한, 이어진 방 등을 이용한 2 단계의 환기와 HEPA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의 사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.  
(예 : 사용하지 않는 방의 창문을 크게 연다)
- 음식점 등에서는 가능한 경우, CO2 센서를 설치하고 이산화 탄소 농도를 모니터

하여 적절한 환기를 통해 1000ppm 이하 (\*) 를 유지  
\*기계환기의 경우. 창문을 통해 환기할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참고.

### 3 적절한 보습(습도 40%이상을 기준)

- 환기를 하면서 가습 실시  
(가습기 사용과 빨래를 실내건조하는 등)
- 수시로 걸레질 청소 실시